

## POLITICS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 첫 내각 인사청문 슈퍼워크 여야 전면전 돌입

(이재명 정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율”  
이개호, 임상연구 16일 공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이 주최하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포럼’에서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과를 입증한 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와 맨발걷기생명과학연구소(소장 고장면 국립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여수요양병원(원장 표연근), 배방개의원(원장 유재성) 등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고장면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에 대해 “혈액 분산 상태는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 지표로, 맨발걷기가 이러한 혈액 건강과 전신 건강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6주간 20대 대학생 5명과 60~70대의 생활습관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등) 환자 5명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질환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30분 걷기 전후에 혈액을 채취한 뒤, 광학현미경과 체세포 분석 분석기를 이용해 혈액 상태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걷기 전 혈액에서는 적혈구가 서로 뭉치는 형태를 보였으나, 맨발 걷기 후에는 적혈구가 고르게 분산된 모습이 관찰됐다.

반면, 신발을 신고 같은 시간 동안 걷기를 진행한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미미했다.

고장면 교수는 “맨발걷기를 통해 인체가 지면과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인체의 전압이 0V가 돼 체내 전압이 안정되고 이는 혈액 분산과 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집지 상태는 빨라진 생활 환경을 조성해 항산화 작용, 혈류 개선, 면역력 증강 등 인체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맨발걷기는 혈액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자연치유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

지하철 무료 이용권 증정

광주교통공사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광주교통공사는 19일 대인예술아시장에서 ‘도시철도 이용 촉진을 위한 제2차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 행사를 펼친다.

‘한 여름 밤의 미식 바캉스’를 주제로 열리는 대인예술아시장 축제와 맞물려 진행되는 행사는 현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할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지하철 1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축제장에 설치된 광주교통공사 부스를 방문해 교환할 수 있으며 무료 이용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외 9월에는 남광주시장, 10월 양동시장, 11월 송정역시장 등에서 제2차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인해 골목경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4~18일 16개 장관 후보자들 국회서 자질 검증  
국힘 ‘이진숙·강선우 정조준’…민주 “결정타 없어”

14일부터 돌입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워크를 맞아 전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청문회에 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엄호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부처 수장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한다.

반약 이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선 반대’에 대한 여론을 모아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접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각종 의혹으로 수사 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불법에 뺨뺨해진다”며 “김 총

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자료 맹탕’ 청문회 선례가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혜·갑질 전례, 입사·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논지방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과 의혹투성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검증단도 띄운 상태다.

민주당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세 정부 출범에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 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탄 공격”이라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명백한 혐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 '국무위원 후보자' 석. 한보

말했다.

또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탄 공격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

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축을 위해 이번 16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치러진다.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광현 국제경찰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고됐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경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AI 반려돌봄 로봇’ 스마트 사회서비스사업 선정

도, 자치단체 중 유일...어르신 사회적고립 해소 기대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로봇은 어르신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묻는 등 일상 속 대화 상대로서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식사 시간이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는 스마트 돌

봄 파트너 역할을 한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에 연계돼 골든 타임 내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돌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전남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 기관으로 함께 추진된다. 돌봄 로봇



제조사인 ㈜효돌과 대상자 선별·관리 역할의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고립형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8월경 본격 보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지희 ㈜효돌 대표는 “전국 최초로 준비한 반려견 모양의 돌봄로봇 지원 사업이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전남도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복지에 적극 접목해, 노인 모두가 체감할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동학 의병 역사 반영”

신민호 전남도의원, 역사 전시 균형성 촉구

전남도가 올해말 개관을 앞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전시 구성에서 ‘동학 의병’의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박물관의 주 전시실이 위정척사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성리학 중심의 의병 서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사천)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박물관 전시가 조선 후기 일부 성리학자 중심의 전시로 구성돼 있어, 진정한 민중 의병의 역사는 빠져 있다”며 “남도의 정체성과 맞닿은 ‘동학 의병’의 역사를 박물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50차례 넘는 전투를 일꾼과 병사 동학 의병의 역사, 그리고 1907년 호남 의병의 주축을 이룬 이름 없는 민중들의 희생은 지금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이 스스로를 ‘의병’이라 칭하며 일제에 맞서 싸웠고, 이는 엄



연히 한말 의병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병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나아가 동학 의병이 단순한 국권 회복을 넘어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대동 세상’을 꿈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이러한 대동 정신의 맥이 깰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민중이 주체가 된 동학 의병의 역사를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전시 공간에 ‘동학실’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동학 연구의 권위자인 박병수 전 원광대 총장도 이러한 주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 청년 ‘드림만남의 날’서 일경험 쌓으세요”

16일까지 400명 모집

내달부터 최대 5개월

광주시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

‘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반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부와 1대 1 맞춤형상담을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 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 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

## 국정홍 “개헌·조직개편 끝까지 꼼꼼히”

활동 반향점...이한주 “조직개편 초안 논의 중”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업무기간 총 60일 중 절반가량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 부처, 기구·내부조직 신설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가 이뤄졌으나, 국정기획위 측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이 위원장은 “이와 달리 신속추진과제의 경우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균형성·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국정위 내 테스크포스(TF)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 면이 있는데, 열심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